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기도의 시간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시간에 쫓기는 일상 속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나눠보세요.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영적 생활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서 대표기도를 맡게 되었을 때, 준비된 기도문이 있다면 더욱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6월에 드리기 좋은 짧지만 깊이 있는 대표기도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1) - 여름의 시작과 함께 드리는 감사 기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5)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시작과 함께 저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봄을 지나오면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드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2) -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7)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령님,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매 순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3) - 가정과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푸른 하늘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이해, 용서와 화목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4) -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다” (시편 23:1-2)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 가운데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약한 체력을 가진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이동하고 여행하게 될 텐데,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적인 건강도 함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 모두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와 다양한 신앙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5) - 하반기를 준비하는 결단의 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절반을 지나는 6월에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내와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걱정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반기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결단이 단지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6) -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생수로 저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새 힘과 새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저희가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과 위로, 격려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을 통한 신앙생활의 깊이

지금까지 6월에 드리기 좋은 짧은 대표기도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도문들은 단지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가 중요함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7) -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성장하는 자연처럼 저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과거에 베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6월, 저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간증이 다른 이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 도전 받은 부분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8) -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사랑의 하나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은 많은 학생들이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의 쉼과 회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 교육부서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9) - 감사와 회개의 기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맑은 하늘처럼 저희의 마음도 맑고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 이웃을 판단했던 순간들,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10) - 교회와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 15)

선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생명력 넘치는 자연처럼 저희 교회도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모여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 생활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11) -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은 많은 가정들이 여름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달입니다. 이 시간들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깊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 인도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 (12)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며 천하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열왕기상 8:23)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은 우리나라의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저희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을 통한 신앙의 깊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짧은 대표기도문 모음 6월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짧은 기도문이라도 진심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특히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길 격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